

수업 목표 : 혼동하기 쉬운 말 중 올바른 말을 찾을 수 있다.

수업 내용

목차 : 1. 같은 발음의 두 단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

부치다/붙이다, 반드시/반듯이, 그러므로/그럼으로, 부딪히다/부딪치다, 이따가/있다가, 다리다/달이다, 잇달다/잇따르다

2. 비슷한 발음 두 단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

홀몸/홀몸, 젓히다/제치다. 추켜세우다/치켜세우다, 늘이다/늘리다, 두텁다/두껍다, 함참/한창, 쫓다/쫓다, 봉오리/봉우리, 껌데기/껌질, 가르치다/가리키다

3. 같은 발음의 두 단어 중 하나만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

일흔/이른, 어떨든/어떠튼, 맞춤/마춤, 오지랖/오지람, 맞추다/마추다, 더욱이/더우기, 몇일/며칠, 설겅이/설거지, 짓궂다/짓궂다, 녀두리/넉두리, 깍두기/깍두기

4. 비슷한 발음의 두 단어 중 하나만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

해님/햇님, 아귀찜/아구찜, 알맞은/알맞는, 숙맥/쑥맥, 바람/바렘, 괴발개발/개발쇠발, 별의별/별에별, 방방곡곡/방방곳곳, 호두/호도, 궁둥이/궁뎅이, 짜장면/자장면, 안쓰럽다/안스럽다, 비비다/부비다, 나는/날으는, 내노라하다/내노라하다, 만날/맨날, 소곤소곤/소근소근, 메밀/모밀, 우레/우뢰, 깨끗이/깨끗이, 끼어들기/끼여들기, 띠다/띄다, 머리말/머릿말, 멋쩍다/멋적다, 스포츠난/스포츠란

5. 띄어쓰기

6. 원고지 사용법

7. 외래어 표기

▶ 다음 중 올바른 말은?

1. 소문이 [금새, 금세] 퍼졌다.
2. 오늘은 [웬지, 웬지] 우울하다.
3. 힘으로 [밀어부쳤다, 밀어붙였다].
4. 답을 [알아맞춰, 알아맞혀] 보세요.
5. 값비싼 대가를 [치렀다, 치뤘다].
6. 상대 팀을 [꺾고, 꺾고] 우승했다.

7. 물건 값을 카드로 [결제, 결제]했다.
8. 산을 [넘어, 너머] 마을로 들어섰다.
9. 깊은 시름에 [쌓여, 싸여] 있다.
10. 이 자리를 [빌어, 빌려] 인사드립니다.

1. 두 단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
A형 : 같은 발음
B형 : 비슷한 발음
2. 두 단어 중 하나만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
C형 : 같은 발음
D형 : 비슷한 발음

A형

1. 부치다/붙이다

우표를 {부쳐/붙여} 소포를 {부쳤다/붙였다}.

붙이다 - ‘붙다’ + 사역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접사 ‘-이-

부치다 - ① 힘이 모자라다 ② (부채 등으로) 바람을 일으키다 ③ 남을 시켜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④ 다른 곳, 기회에 넘기어 맡기다 ⑤ 어떠한 대우를 하기로 하다 ⑥ 심정을 의탁하다 ⑦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⑧ 빈대떡 같은 것을 익혀서 만들다 ⑨ 몸이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

2. ‘반드시/반듯이’

그는 {반드시/반듯이} 다시 돌아올 것이다.

고개를 {반드시/반듯이} 들어라

반드시 - ‘꼭, 틀림없이’

반듯이 - ‘반듯하게’

3. ‘그러므로/그럼으로’

나는 생각한다. {그러므로/그럼으로} 나는 존재한다.

그는 열심히 일한다. {그러므로/그럼으로} 삶의 보람을 느낀다.

그러므로 - ‘그러니까, 그렇기 때문에, 그러하기 때문에’ 등의 의미

그럼으로(써) - ‘그렇게 하는 것으로써’라는 수단의 의미

4. ‘부딪히다/부딪치다’

아이가 달려오는 차에 {부딪혀/부딪쳐} 크게 다쳤다

아이가 걸어가다가 (주차해 있는) 차에 {부딪쳤다/부딪쳤다}

부딪히다 - ① ‘부딪다’(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 달거나 마주 대다)
피동형

②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에 직면하다

부딪치다 = 부딪다

① 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 달거나 마주 대다

②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다

③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로 대립 관계에 놓이다

5. 이따가/있다가

그럼 {이따가/있다가} 보자.

너는 여기 {이따가/있다가} 가라.

이따가 - ‘조금 지난 뒤에’란 뜻의 부사

있다가 - 용언 ‘있다’ + 어미 ‘-다가’

6 ‘다리다/달이다’

옷을 다리다 / 약을 달이다

7. 복수 표준어

‘잇달아/잇따라’와 ‘가엿다/가엹다’, ‘서럽다/섭다’, ‘여쭙다/여쭈다’, ‘만큼/만치’,
‘철따구니/철딱서니’

B형

1. 홀몸/홀몸

홀몸 -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= 혈혈단신

홀몸 - 아이를 배지 않은 몸

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(=홀몸)

2. 젓히다/제치다

몸을 뒤로 {젓히다/제치다}

수비수를 {젓히고/제치고} 골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

젓히다 ①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다

② ‘젓다’(뒤로 기울다)의 사동형

제치다 ①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

②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

③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

④ 일을 미루다

3. 추켜세우다/치켜세우다

영웅으로 {추켜세우다/치켜세우다}

추켜세우다 - 위로 치올리어 세우다

치켜세우다 - ① = 추켜세우다

②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

4. 늘이다/늘리다

늘이다 - 본디보다 길게 하다

아래로 길게 쳐지게 하다

늘리다 - ‘늘다’의 사동사

5. 두텁다/두껍다

‘날씨가 추우니 {**두꺼운**/두터운} 옷을 입으세요’

두텁다 - 신의, 믿음, 관계 등이 굳고 깊다

두껍다 - 두께가 보통보다 크다. 어둠, 안개 등이 짙다

6. 한참/한창

진달래가 {한참이다/**한창**이다}

벼가 {한참/**한창**} 무르익었다.

한참 -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

한창 -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나 모양

7. 좇다/쫓다

사람은 누구나 이상을 {**좇아**/쫓아} 산다.

경찰이 범인을 {쫓고/**좇고**} 있습니다.

좇다 - ① 목표, 이상 등을 추구하다

② 남의 말(규칙, 관습 포함)이나 뜻을 따르다

③ 눈여겨보거나 눈길을 보내다

쫓다 - ①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뒤를 따라 급히 가다

② 어떤 자리에서 내몰다

8. ‘봉오리/봉우리’

꽃봉오리 / 산봉우리

9. ‘껍데기/껍질’

조개 껍데기 / 굴 껍질

10. ‘가르치다/가리키다’

11. 복수표준어

‘눅장/늑장’, ‘귀걸이/귀고리’, ‘헛갈리다/헛갈리다’

C형

1. ‘일흔/이른’

일흔(0) / 이른(X)

설흔(x) / 서른(0)

2. 어떨든/어떠튼

어떨든(0) / 어떠튼(X)

아물든(x) / 아무튼(0)

3. 맞춤/마춤

맞춤(0) / 마춤 (X)

4. 오지랴/오지랍

오지랴(0) / 오지랍 (X)

5. 맞추다/마추다

맞추다(0) / 마추다 (X)

6. 더욱이/더우기

더욱이(0) / 더우기(X)

7. 몇일/며칠

며칠(0) / 몇일(X)

8. 설거지/설거지

설거지(0) / 설겅이(X)

9. 짓궂다/짓궂다

짓궂다(0) / 짓궂다(X)

10. 녀두리/넉두리

넉두리(0) / 녀두리(X)

몹돈(x) / 몹돈(0)

11. 짝두기/짝두기

짝두기(0) / 짝두기(X)

D형

1. 해님/햇님

해님(0) / 햇님(X)

한글 맞춤법 제30항

사이시옷은

1.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(선짓국, 아랫집, 햇별 등) ② 뒷말의 첫소리 ‘ㄴ, 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 (아랫니, 잇몸, 빗물, 냇물 등)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 (뒷일, 베갯잇, 깻잎, 나뭇잎)에 받치어 적으며,
2.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(긋병, 머릿방, 자릿세, 전셋집, 텃줄 등), ② 뒷말의 첫소리 ‘ㄴ, 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(겻날, 제삿날, 양치물, 수돗물 등)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(예삿일, 가윗일 등)에 받치어 적고, 3. 두 음절 한자어 중 ‘긋간, 셋방, 숫자, 찻간, 텃간, 횡수’에만 받치어 적는다

2. 아귀찜/아구찜

아귀찜(0) / 아구찜(X)

3. 알맞은/알맞는

알맞은(0) / 알맞는(X)

4. 숙맥/쑥맥

숙맥(0) / 쑥맥(X)

5. 바람/바람

바람(0) / 바람(X)

6. 괴발개발/개발쇠발

괴발개발(0) / 개발쇠발(X)

7. 별의별/별에별

별의별(0) / 별에별(X)

8. 방방곡곡/방방곳곳

방방곡곡(0) / 방방곳곳(X)

9. 호두/호도

호두(0) / 호도(X)

10. 궁둥이/궁뎅이

궁둥이(0) / 궁뎅이(X)

11. 안쓰럽다/안스럽다

안쓰럽다(0) / 안스럽다(X)

12. 비비다/부비다

비비다(0) / 부비다(X)

13. 나는/날으는

나는(0) / 날으는(X)

14. 내로라하다/내노라하다

내로라하다(0) / 내노라하다(X)

15. 만날/맨날

만날(0) / 맨날(X)

16. 소곤소곤/소근소근

소곤소곤(0) / 소근소근(X)

18. 메밀/모밀

메밀(0) / 모밀(X)

19. 우레/우뢰

우레(0) / 우뢰(X)

20. ‘깨끗이/깨끗히’

깨끗이(0) / 깨끗이(X)

한글 맞춤법 제 51항

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‘-이’로 나는 것은 ‘-이’로, ‘히’로만 나가거나 ‘이’나 ‘히’로 나는 것은 ‘-히’로 적는다

- ① ‘하다’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‘ㅅ’인 경우 : 가붓이, 깨끗이, 나긋나긋이, 나붓이, 느긋이, 따뜻이, 반듯이, 버젓이, 지긋이 등
- ② ‘ㄴ’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: 가까이, 가벼이, 고이, 괴로이, 기꺼이, 너그러이, 대수로이, 번거로이, 새로이, 쉬이, 외로이 등
- ③ ‘-하다’가 붙을 수 없는 용언 어간 뒤 : 같이, 굳이, 깊이, 높이, 많이, 실없이, 적이 등
- ④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: 간간이, 곳곳이, 길길이, 나날이, 달달이, 번번이, 일일이, 툼툼이 등
- ⑤ 부사 뒤 : 더욱이, 일찍이, 곰곰이 등

21. 끼어들기/끼여들기

끼어들기(O) / 끼여들기(X)

끼다(능동적 행위)/끼이다(피동적 행위)

피동접사

끼- + -어 ➡ 끼어

끼이- + 어 ➡ 끼이어>끼여

22. 띠다/띄다

① 그녀는 얼굴 가득 미소를 {띠고/띄고} 있었다.

② 눈에 {띠는/띄는} 행동을 하지 마라.

띠다 - (띠를) 두르다, (물건을) 몸에 지니다. (용무, 직책, 사명을) 가지다, (빛깔을) 조금 가지다, (감정, 표정, 기운을) 조금 나타

내다

띄다 - 띄이다(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솟아오르다, 틈이 생기다)의 준말, ‘띄우다’의 사역형

23. ‘머리말/머릿말’

머리말(0) / 머릿말(X)

24. 멋쩍다/멋적다

멋쩍다(0) / 멋적다(X)

<한글 맞춤법 제54항>

‘-꾼, -갈, -때기, -꿈치, -배기, -찍다’와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
다만 ‘-배기/빼기’는 ① [배기]로 발음되면 ‘-배기’로 적고(육자배기), ②
‘ㄱ, ㅂ’ 받침 뒤에서 [빼기]로 발음되는 경우는 ‘-배기’로 적으며(뚝배기),
③ 나머지 [빼기]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‘-빼기’로(언덕빼기, 곱빼기) 적는다.

‘-적다/찍다’도 ① [적다]로 발음되면 ‘-적다’로 적고(괴다리적다, 열통적다), ② 적다(少)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‘-적다’로 적고(맛적다), ③ 적다(少)의 뜻이 없이 [찍다]로 발음되면 모두 ‘-찍다’로(미심쩍다, 수상쩍다, 의심쩍다) 적는다.

25. 스포츠난/스포츠란

스포츠난(0) / 스포츠란(X)

띄어쓰기

한글 맞춤법 제41항에 ‘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’

다음 42항에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

<판서>

아는 것이 힘이다.

나도 할 수 있다.

먹을 만큼 먹어라.

아는 이를 만났다.

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.

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.

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

1. 의존명사 ‘데’와 어미 ‘-는데/-ㄴ 데’입니다. 의존명사 ‘데’는 의미상 ‘것’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‘것’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띄어 쓰고, 바꾸어 쓸 수 없으면 붙여 씁니다.

따라서

그를 {설득하는데/설득하는 데} 며칠이 걸렸다.

와 같이 씁니다.

2. 의존명사 ‘만큼’과 조사 ‘만큼’입니다. 의존명사는 앞에 용언의 관형형(-은, -는, -을)이 오고, 조사는 체언이 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

나도 {할 만큼/할만큼} 했어.

나도 {너 만큼/너만큼} 힘들어.

와 같이 씁니다.

3. 의존명사 ‘들’입니다. 같은 무리에 속하는 명사를 열거한 다음에 앞에 늘어놓은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, 등(等), 따위의 의미일 경우는 의존명사입니다.

따라서

소·말·개·돼지·닭 **들**을 가축이라고 한다.

와 같이 띄어 씁니다.

다음 43항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고, 다만,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단위를 나

타내는 명사 ‘개, 마리, 대, 그루’ 등은 대부분 잘 띄어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유독 돈을 나타내는 단위 ‘원’은 띄어 쓰지 않고 앞말에 붙여 씁니다. 그러나 ‘만원, 십만 원’과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.

46항에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‘그때 그곳, 좀더 큰 것, 이말 저말, 한잎 두잎’과 띄어 씁니다.

47항에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어느 것이나 상관없지만 한편의 글 안에서는 모두 띄어 쓰든지 모두 붙여 쓰는 게 좋습니다.

다음 ‘-경, -여’와 같은 접미사를 띄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것은 접미사이기 때문에 모두 앞말에 붙여 씁니다. 따라서 ‘한 시경에, 십여 년 만에, 수백여 명’과 같이 띄어 씁니다.

원고지 사용법

첫 번째 숫자입니다. 숫자는 한 칸에 두개씩 씁니다. 이때 부호가 있으면 하나의 숫자로 간주합니다. 다만, 분수는 한 칸에 씁니다.

	13	4			12	,0	00		3	.	1		운	동
	2	:	4		1/2									

두 번째 영어입니다. 영어의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를 쓰고, 소문자는 두 개를 씁니다.

	K	or	ea	!										
	K	O	R	E	A	!								

세 번째 인용문 쓰기입니다. 인용문을 쓸 때는 줄을 바꾸어 씁니다. 인용하는 말이 끝나도 줄을 바꿉니다. 또 인용하는 말을 쓸 때, 인용하는 말 안에서 문단이 바뀌면 두 칸 들여 씁니다.

	“	영	희	야	!		밥		떡	어	라	.”		
	라	고		말	씀	하	셨	다	.					

네 번째 문장부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호입니다. 부호는 기본적으로 한 칸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	왜	?		알	았	어	!							
	30	~	40	년			20	%						

이때 주의할 점은 줄 끝에 오는 문장부호입니다. 더 이상 칸이 없을 때는 다음 줄에 쓰지 않고, 원고지 칸 밖에 씁니다.

	“	오	늘	도		또		비	가		오	는	구	나	.”